



23일 광주 북구 순방에 나선 윤장현 광주시장(가운데)이 송광운 북구청장의 안내를 받으며 용봉동 청사 광장에 들어서자 북구 대형마트입점저지 대책위원회 회원이 다가와 '대형마트 건축계획 철회하라!'의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윤장현 시장 “31사단 이전 신중히 진행할 것”

보류 의사 밝혀...세계수영 선수촌 분산 보다 한 곳에 건립 재확인

윤장현 광주시장(가운데)이 “31사단 이전을 신중히 진행하겠다”며 재검토를 시사했다. 윤 시장은 23일 오후 광주 북구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존 31사단 외곽 이전 추진 과정에서 해당 군부대와 협의 과정을 가볍게 넘기고 국방부 장관과 먼저 협의하지 않았나 싶다. 경제성 검토 역시 없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또 “시 행정은 원칙에 따라 우선순위에 따라 해야 한다. 평등 포 사격장은 옮기면 바로 공단으로 활용 가능하고, 군 공항은 소음피해 민원이 심하게 우선순위에 고려하지만 일단 군부대 자리부터 비운다고 시가 시설을 확보하고 개발할 여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사실상 31사단 이전 계획의 보류 의사를 밝혔다. 윤 시장은 특히 “군 부대 등을 혐오시설로 보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도심에 군부대가 있는 것이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고 인식하는데 상무대가 광주에 있었을 때 지역 경제의 반을 차지한다는 말이 있었다”면서 이전 후 활용책이나 경제 성장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선수촌 건립과 관련해서는 “도시 전체 균형발전을 위한 5개 구 분산 건립보다는 입주 조건과 공사기간 등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시장은 최근 북구에 대형마트들의 입점 시도와 관련해서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며 “지역 내에 풀뿌리 경제가 살아있으면 (대기업이) 함부로 진입을 못하는데 그게 안돼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확 바뀐 ‘시민과의 대화’

윤장현 시장 의전 없애고 시민 중심 ‘눈높이 소통’

윤장현 광주시장(가운데)이 ‘시민과 동등한 위치에서 소통하겠다’는 시장후보 시절 약속을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지켜나가고 있다. 윤 시장은 취임 후 첫 ‘시민과의 대화’에서 기존 시장중심의 권위적 행사 진행을 지양하는 대신 시민과 ‘눈맞추기’에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장이 구청 직원들이 도열한 가운데 박수를 받으며 입장하는 기존 형식을 없애고, 곧바로 민원실로 직행해 고생하는 공무원들부터 격려하는 방식으로 구청 방문 행사를 시작했다. 시민과의 대화도 마찬가지로,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시민에게 시장 입장을 전달하고, 사전에 예약된 몇몇 참석자의 제안을 듣는 형식적인 방식을 깨도록 했다. 기존 ‘시민과의 대화’는 구청에서 미리 준비한 각본에 따라 참석 구민이 시장에게 지역 민원사항을 건의하면, 시장은 선심 쓰듯이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을 하는 식이었다.

윤 시장은 지난 15일 동구에서 열린 첫 시민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남구와 북구 등을 거치면서 의전 절차를 생략하거나 대폭 축소하도록 했다. 윤 시장은 이 같은 지시에도 일부 순방 행사에서 참석자 소개, 시장설명 등 의전절차가 길어지자, 다시 한번 시민과의 토론 시간을 늘리고 의전 절차를 축소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이번 ‘시민과의 대화’는 원탁에 시민들이 둘러앉아 분야별 현안을 놓고 주제 토론을 하면, 윤 시장이 각 테이블을 돌면서 직접 제안을 듣고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 인기투표 등을 통해 테이블별로 가장 좋은 의견을 선정하는가하면 현장화면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실시간으로 알리고 있다. 23일 북구에서 열린 시민과의 대화에 참석한 김지훈(42)씨는 “기존과 달리 지루한 의전절차가 간소화되고, 시민중심으로 행사가 진행된 덕분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안됐다”고 말했다. /채희정기자 chae@kwangju.co.kr

“亞문화전당 운영 주체 국회 결정 따르겠다”

김종덕 문광부장관 “亞문화개발원장 내달초까지 임명”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3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주체 문제는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박해지(새정치·광주 서구갑) 의원실에서 열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준비 관련 간담회’에서 박 의원이 아시아문화전당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할때나 국회에 맡겨달라”는 요구에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박주선(새정치·광주 동구)의원과의도중환(새정치·비례)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정기국회에서의 특별법 개정안 논의 방향과 2015년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예산반영 등을 사전 조율하기 위해 진행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해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문화콘텐츠 예산 집행률 저조와 전시·공연 중심의 ‘아트홀’ 성격 축소, 운영 컨트롤 타워 부재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도 의원은 “광주의 박물관 관람객수, 공연장 이용 비율 등을 보면 수용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트홀 성격을 축소하고, 생산 프레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주선 의원은 장관의 추진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뒤 운영주체 문제를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아시아문화개발원장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10월 초까지는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구성지구 이어 삼호도 사업 승인 골프장 착공...내년 9월 45홀 완공

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슬라시도’ 어떻게 돼가나

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 사업인 슬라시도 3개 사업지구 중 하나인 삼호지구 내 골프장 건립사업이 승인을 받아 공사에 착수하는 등 개발이 본격화된다.

사업승인 및 착공은 구성지구 이어 두 번째로, 오는 2025년까지 1조6000억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민간투자자로 조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영암군은 최근 삼호읍 일대에 조성될 삼호지구 내 골프장(45홀) 사업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삼호지구 조성 기업인 에이스회원권 거래소는 지난달 공사에 들어갔으며, 내년 9월 완공할 계획이다.

에이스회원권거래소는 별도 골프장 18홀에 대한 사업 승인을 오는 12월 신청한 뒤 내년 초에 착공해 2016년 2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도는 삼호지구 조성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 착공한 서측 내부진입도로(1.75km)를 조기에 개설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삼호지구와 구성지구 공유수면매립지 양도·양수가 3년여에 걸쳐 마무리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개발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진입도로 조기개설도 박차

지난 3월 사업부지 843만㎡ 매입

사업비 1조 6000억원 유치가 관건

삼포지구 담보, 부동지구 청산 절차

있다”고 말했다.

삼호지구는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시개발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의 심의·의결을 거쳐 영암군 삼호읍 일원(866만㎡)에 조성되는 개발 구역·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사실상 궤도에 올랐다.

지난 3월에는 시행사인 서남해안레저(주)가 3.3㎡당 3만2000원선에 놓여총공사로부터 사업부지 866만1000㎡ 중 97.4%인 843만8000㎡를 매입함으로써 2011년 이후 담보상태에 있던 간척지 양도·양수 문제가 마무리되기도 했다.

삼호지구는 영암군 삼호읍 일대 866만1000㎡

(262만평)에 골프장(81개홀)과 스포츠·레저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삼호지구는 구성지구 이어 2번째로 조성에 들어갔다.

구성지구는 전체 슬라시도 면적의 3분의2를 차지하는 2096만㎡(634만평)으로 2025년까지 총 1조1000억여원의 투자를 유치해 생태관광, 바이오 에너지, 지역문화 체험, 종합 레포츠가 어우러진 기업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골프장, 신재생 및 바이오 시설, 의료시설, 컨벤션센터, 마린, 승마장, 남도음식문화촌, 워터파크, 휴양 숙박시설 등을 유치하고, 전체면적의 26.8%를 공원 녹지로 조성함으로써 영암호·금호호 지역의 야생 동식물 서식환경을 최대한 보전해 약 1만5300명(732세대)이 상주하는 친환경 해양관광레저도시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골프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있는데다 구성·삼호지구의 성패를 가늠할 민간투자자 예상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구성지구, 삼호지구, 삼포지구, 부동지구 등 4개 지구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부동지구는 시작도 못해보고 청산 절차를 밟았으며, 총사업비가 1조8000억원에 달하는 삼포지구는 중국 등 외국자본 유치 실패로 담보 상태에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풀리처상사진전

THE PULITZER PRIZE PHOTOGRAPHS

2014. 9. 19 ~ 11. 30 / 광주문화예술회관 전시관



본 전시는 워싱턴 소재의 연방비밀관 뉴스센터(FBI NEWS CENTER)와 뉴욕 비츠노스 오보 연방연립비즈니스 OF ENTERTAINMENT의 후원하에 ADOY 박씨(YIM A. RUIBORA)에 의해 기획되었습니다.

주최 KCTV 광주방송 KBC 광주방송 주관 (주)광안아트센터 협력 NEWSBLUM 후원 광주광역시

문의 : 1588-0766 예매 : 티켓마루, 인터파크

www.pulitzerprize.co.kr

NAVER 풀리처상 사진전